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대동강 물길이 바뀐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대동강은 오늘날처럼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지 않았습니니다. 평양 시내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대동강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양 땅에는 샘물이 없어 사람들은 대동강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니다. 평양에 샘물이 없는 것은, 풍수지리설에서 평양이 배의 생김새와 같다고 짐작마다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배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대나요, 어쨌든 강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한번 길어 오려면 여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평양 땅에 물지게를 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니다.

“물을 길어다 마시느라 힘드시죠? 그런 일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물 값만 주신대면 제가 물을 길어다 드릴게요.”

물장수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반색을 했습니다.

“오, 그래? 물 값을 줄 테니 우리 집에 물을 길어다 주게.”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사서 마실 엄두를 못 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니다. 이들은 물장수에게 물 한 지게에 얼마씩 돈을 주고 집 안에서 편안히 물을 사 먹었습니다.

물장수는 하루 온종일 평양 시내와 대동강을 오가며 물

을 길어 낚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물장수는 물을 길어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동강 물이 평양을 가로질러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물을 길어오려고 20리 길을 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물장수는 물을 길어다 먹느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신통력이 있다면 대동강 물길을 바꾸어 평양 한가운데로 흐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느님,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대동강 물길을 바꾸어 주세요.’

물장수는 새벽에 눈을 뜨면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친 물장수는 물값으로 받은 몇 푼 돈으로 양식을 사려고 장터에 들렀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한 어부가 물통에 잉어를 담아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잡은 잉어예요. 꼭 고와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물장수는 발길을 멈추고 잉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큰 잉어가 물장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유, 어찌다 그물에 걸렸니. 너도 살고 싶은 모양이구나.’

물장수는 잉어가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려는 돈을 몽땅 털어 잉어를 사버렸습니다. 물장수는 자신의 물통에 잉어를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강에 가서 놓아 주마.”

물장수는 잉어가 죽을까 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향해 온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후유, 이제 다 왔다. 다음부터는 어부한테 잡히지 말고 잘 살아라.”

물장수는 물통에서 잉어를 꺼내 강물에 놓아 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잉어는 지느러미를 힘차게 움직이며 물속을 헤엄쳐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대동강으로 간 물장수는 물가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물장수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어제 잉어로 변하여 나들이를 나왔다가 어부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는데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 주셨지요. 아버지께서는 어르신께 은혜를 입었다고 용궁으로 꼭 모셔 오라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지지요.”

소년은 물장수를 등에 업더니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속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숨도 쉬고 무엇이든 볼 수 있어서였습니다.

소년은 물장수를 용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용왕은 물장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는 내 아들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요.”

용왕은 물장수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칫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 상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잔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장수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이 며칠이지? 집에서는 내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물장수는 집이 걱정되어 용왕 앞으로 나아가 그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더 쉬었다가 가면 좋으려면……. 정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 주겠소.”

물장수는 용왕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평양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느라 고생하지 않게, 대동강 물길을 바꾸어 평양 한복판에 흐르게 해 주십시오.”

용왕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부자로 살려고 보물을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 역시 그대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더 생각하는 구먼. 그대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요. 내



가아무달아무날아무시에 평양땅에 큰비를 내리겠소. 그리하여 대동강 물길을 돌려 평양 한복판에 흐르게 하겠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장수는 너무 기뻐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용왕에게 수없이 절을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물장수는 곧바로 평양 감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사님,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시에 이곳에 큰비가 내릴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려 피난을 가게 해 주십시오.”

평양 감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그 말을 믿으라고? 허허, 거참 별일이군.”

평양 감사는 물장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감사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물장수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물장수는 평양 감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평양 성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아무 달 아무 일 아무 시에 우리 고을에 큰비가 내립니다. 모두들 피난을 가십시오.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장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을 믿느니 개가 짖는 소리를 믿지.”

“용한 점쟁이도 아니면서 헛소리를 하기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러나 평양 사람들 가운데는 물장수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장수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그래서 물장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미리 집을 꾸러 피난을 갔습니다.

드디어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시가 되었습니다. 용왕은 약속대로 큰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평양 고을이 온통 물바다를 이루었고, 피난 안 간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내린 비가 그치자 대동강은 물길이 바뀌어 평양 시내 한가운대를 흘렀습니다.

이리하여 평양 사람들은 물장수 덕분에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 고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